

[사회]

전남대 학생 1인당 장서 수 최하위권

51권 불과…18개 국립대 중 16위

호남권 4개 대 모두 10위권 이하

호남지역 대표 국립대학교인 전남 대의 학생 1인당 장서 수가 전국 18개 국립대 가운데 16위로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공시정보 웹사이트인 '대학알리미'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학생 1인당 장서 수는 전남대가 51.1권으로 전국 18개 국립대 중 16위였다. 국립대 중 해양과 공학, 체육 등 전문

분야 대학과 캠퍼스 등 12개교는 비교에서 제외했다.

국립대 중 장서 수가 가장 많은 대학은 서울대로 149.4권이었으며 2위는 경북대로 97.1권, 3위 안동대 91.0권, 4위 제주대 81.6권, 5위 부산대 71.5권, 6위 강릉원주대 66.1권, 7위 경상대 64.7권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전남대는 신문(국내외) 구독 종류도 12가지에 불과해 비교

등 4개 대학은 어느 한 곳도 10위 안에 들지 못했다.

특히 전남대는 호남지역 내 국립대 가운데에서도 1인당 장서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대는 57.2권, 전북대 53.7권, 목포대 53.3권이었다.

한편 국내 대학의 독서교육은 수년 전부터 그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학과별 또는 단과대학별로 1년에 10권 내외를 읽어야 졸업을 인증해주는 곳이 늘고 있다. 전남대 신문방송학과의 경우 한 학기에 3권이상, 4년 동안 총 40권 이상을 읽어야 졸업할 수 있다.

/채희증기자 chae@kwangju.co.kr

국립대 가운데 끌어안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문 구독은 경북대가 128종류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대 69종, 강원대 58종, 광주대 55종, 부산대 29종, 경상·군산대 28종, 부경·충북대 25종 등이었다.

시는 26일 오후 2시부터 1시간동안 시청사 주차장에서 철쭉 2천주, 매실 나무 1천주를 선착순으로 1인당 세 그루씩 나눠준다. 하계U대회 유치 기원

'희망 리본 달기' 행사를 함께 열친다.

이번 행사는 하계U대회 실사에 앞서 유치 봄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내 나무 심기 운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푸른 광주' 조성을 위해 1천만그루 나무심기와 송암로 등 주요 관문로 및 가로수 정비, 시청사 광장 숲 조성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시, U대회 유치 기원

나무 3천그루 나눠줘

광주시가 제64회 식목일을 앞두고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 대회) 유치를 기원하며 시민들에게 나무를 무상으로 나눠준다.

시는 26일 오후 2시부터 1시간동안 시청사 주차장에서 철쭉 2천주, 매실 나무 1천주를 선착순으로 1인당 세 그루씩 나눠준다. 하계U대회 유치 기원

'희망 리본 달기' 행사를 함께 열친다.

이번 행사는 하계U대회 실사에 앞서 유치 봄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내 나무 심기 운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푸른 광주' 조성을 위해 1천만그루 나무심기와 송암로 등 주요 관문로 및 가로수 정비, 시청사 광장 숲 조성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물 06시 30분 해진 18시 48분

달금 05시 26분 달점 17시 30분

매서운 꽃샘추위

구름이 많이 끼겠다.

광 주	흐림	1/8°C
목 포	흐림	1/7°C
여 수	구름 조금	3/7°C
완 도	흐린 뒤 맑음	1/7°C
구 래	흐린 뒤 맑음	-1/9°C
해 남	흐린 뒤 맑음	-1/8°C
장 흥	흐린 뒤 맑음	-1/8°C
고 용	구름 조금	0/9°C
순 천	흐린 뒤 맑음	2/9°C
영 광	흐림	-1/6°C
전 도	흐린 뒤 맑음	0/7°C
전 주	흐림	-1/8°C
남 원	구름 많음	-2/8°C
흑 산	흐림	3/6°C

비단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일비단	서~북서	1.0~1.5m	목포 01:12 13:37	06:37 18:58
면비단	서~북서	1.0~2.0m	여수 08:31 20:41	02:07 14:31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날씨	26(목)	27(금)	28(토)	29(일)	30(월)	31(화)
최저/최고	1/12	0/12	1/12	2/12	2/13	2/11	2/13

“1천원으로 광주 관광을”

시티투어버스 운행

광주시는 29일부터 외래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관광지와 지역 명소를 널리 알리기 위해 '광주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한다.

오는 11월 30일까지 매주 금~일요일 사흘간 운행되는 시티투어버스는 봄에는 오전 9시30분, 여름과 가을에는 오전 9시에 시청에서 출발한다. 디자인비엔날레(9.18~11.4)와 세계광액스포(10.9~11.5), 김치축제(10.23~11.1) 등 주요 축제 행사기간에는 특별 코스가 추가되며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주요 경유지는 봄철의 경우 국립박물관, 국립518묘지, 월계동 장고분, 포총사, 빙월당, 만귀정,

원효사, 총장사 등이다. 또 여름에는 광룡박물관·빛고을국악전 수관·죽녹원·대나무박물관·송강정, 가을에는 디자인비엔날레 전시관·광액스포·김치축제 행사장 등이 포함된다.

투어버스에는 관광가이드가 배치돼 관광명소를 생생하게 안내한다. 탑승료는 경제난 속에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도록 1천원으로 책정됐으며, 관광지 입장료 등은 관광객 부담이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이나 관광객들은 탑승 하루 전까지 광주관광안내센터(062-233-3399)에 사전 예약하고 출발지인 시청이나 아동 성폭력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살인이나 미성년자 약취 유인, 아동 성폭력, 강도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폐지'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강경 투쟁을 선언했다.

전교조 전남지부와 '일제고사반대하는 광주·전남시민모임'은 이날 집회에서 "학교와 학생을 서열화하는 일제고사는 중단돼야 한다"며 "지난해 일제고사에서도 그 폐해가 명백히 드러난 만큼 전남도 교육청은 일제고사 일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박진표기자 lucky@

조선대 “임시이사 저지”

장외 투쟁·홍보 나섰다

조선대학교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임시이사 파견 움직임을 막기 위해 시민을 상대로 한 홍보 등 장외 투쟁에 나섰다.

조선대학교 정상화 및 전 경영진 복귀자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오후 4시 조선대학교설립기념탑 앞에서 교수, 학생, 직원, 등으로 참석한 가운데 '임시이사 파견저지 및 정부에 정부에'를 위한 범조선인 투쟁선포식'을 갖고 옛 전남도청 앞까지 시가 행진을 벌였다.

이날 투쟁선포식에서는 교과부의 임시이사 파견 움직임이 대학 정상화를 통해 학교의 안정과 발전을 추구

해온 대학 구성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교과부 스스로 자신의 행정처분을 뒤엎는 부당한 행정위임을 규탄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 구성원과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구 경영진의 복귀를 막고 정부에 체제를 통한 법 인정상화 의지를 다짐한다.

선포식은 정해만 비대위 운영위원장의 대회사, 최영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의 연대사, 교수평의회 의장·총동창회 대표·학생 대표의 규탄발언, 이재규 직원노조위원장의 투쟁선언문 발표순으로 진행된다.

/채희증기자 chae@kwangju.co.kr



가수 현숙씨와 함께 '조손 가정·공무원 1대1 결연'

‘자사고’ 상반기 30곳 지정·하반기 학생모집

교과부 운영계획 확정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설립되는 새로운 사학 모델인 자율형 사립고 운영계획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자율형 사립고는 전기에 일반계 고교에 앞서 지역 또는 광역 시도 범위에서 학생을 선발하고, 비평준화 지역은 학

모집하게 된다.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장 자율로, 평준화 지역은 추첨을 하거나 학교장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반영해 추첨하는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과열 입시와 사교육을 유발 할 수 있는 지필고사와 교과지식을 묻는 방식의 구술면접은 금지된다. 정원의 20%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등 사

회적 배려 대상자를 뽑아야 한다. 교과부는 법령이 시행되면 다음 달부터 시·도 교육청별로 본격적인 자율형 사립고 지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되려면 법인 전입금 비율이 특별히 5% 이상, 도 소재 학교는 등록금 수입의 5% 이상, 도 소재 학교는 3% 이상이어야 한다.

교과부는 올 상반기 30곳의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하고 내년에는 60곳, 2011년에는 100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올해 지정되는 자율형 사립고는 하반기 학생선발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개교한다. /연합뉴스

흉악범 얼굴 공개

법무부, 법 개정 추진

살인이나 아동 성폭력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특

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살인이나 미성년자

약취 유인, 아동 성폭력, 강도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

단될 때는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폐지'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강경 투쟁을 선언했다.

전교조 전남지부와 '일제고사반대하는 광주·전남시민모임'은 이날 집회에서 "학교와 학생을 서열화하는 일제고사는 중단돼야 한다"며 "지난해 일제고사에서도 그 폐해가 명백히 드러난 만큼 전남도 교육청은 일제고사 일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박진표기자 lucky@

장기예금
무안 – 장사(장가계) 직행!!!

2009년 2월 27일 토요일 ~ 3월 1일 일요일
749,000원

2009년 2월 27일 토요일 ~ 3월 1일 일요일
799,000원

광주MBC 뮤직뱅킹 문의 062-226-6070